



일본 3대 항구 중 하나인 고베항 전경. 고베시는 주민들이 수립한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마노지구 마치즈쿠리추진회 사무실 내 게시판을 보고 있는 시미즈 마치히사 사무국장.



마노지구 마치즈쿠리추진회 사무실 앞.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나무 한그루부터 우리 손으로... 도시 바꾼 시민의 힘

도시 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8> 日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구상

일본 효고현 고베시 외곽에 위치한 마노(真野)지구는 일본의 '마치즈쿠리'(우리나라에서는 마을 만들기)로 해석되지만 어반 플래닝(Urban Planning), 즉 도시계획을 의미한다)를 상징하는 곳이다. 공해추방·녹화운동, 복지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결속력이 다져진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가는 것이 이 마치즈쿠리의 골자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가 공모나 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비해 마치즈쿠리는 주민들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채 실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조지를 구성한 뒤 작성한 계획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 둘 모여 자치구 계획이나 되고, 다시 도시계획이 된다. '계획을 작성하는 권한'이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자치조직에 있다는 점이 마치즈쿠리와 마을만들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마노지구 '마치즈쿠리'의 시작=주거와 공장이 섞여 있는 마노지구는 1950년대 말부터 심각한 공해 문제가 발생, 일본 각지에서와 유사하게 공해추방운동

이 벌어졌다. 이것이 주민 1명 나무 1그루 심기 등의 녹화운동,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향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장래상을 고민하고 그 실현을 추구하는 마치즈쿠리 운동으로 발전했다.

마노지구는 우리나라 도시의 구도심과 같은 인구 감소(1960년 1만3000명, 1980년 7000명, 2010년 4100명)를 겪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전체의 34.1%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주거지역 내 공장들이 분포하면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속에서 마노지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마치즈쿠리'를 선보였다. 일단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회, 부인회, 청년모임 등이 앞장섰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15개 자치회, 2개 연합자치회 등이 개최한 '마치즈쿠리' 간담회. 이 8년간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고베시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을 정하고 ▲복합적인 대처 ▲점진적인 정비 ▲기존 공동체(커뮤니티) 유지 등을 방침으로 확정했다. 또 이 '기나긴' 간담회를 통해 마치즈쿠리 과제·해결 방안·그 체제와 운영방법 등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조사항 내용을 공감하면서 1980년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구상'의 발단이 됐다.

◇계획 수립만 10년, 30여년 간 '골격' 그대로=본격적인 마치즈쿠리 구상을 위해 검토회의가 발족한 때가 1978년 말이다. 자치회 3명, 부인회 1명 등 4명이 임원이 되고, 지역유지 27명, 전문가 4명, 고베시 직원 4명 등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 중에는 주민과 이해가 대립했던 공장 관계자도 있었다.

구상은 기본적으로 인구 정착, 주택과 공장의 공존

부인회·청년모임 앞장 공해추방·녹화운동이 모태 주민조직이 행정 참가해 노후주택·도로 문제 해결

공명, 안전하고 윤택한 주거환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검토회의는 무엇이 마노지구의 문제인가, 좋은 점 없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주택·환경 개선, 주택과 공장 관계 개선, 도로 개선, 주차장 대책, 자동차공해 대책, 시설 정비 등을 주제로 잡아 미래상을 설정했다. 만들어진 구상은 크게 '시설 만들기'와 '주민의지 다지기'로 구분해 토지이용,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허용 범위,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마치즈쿠리 학습강좌, 자치회 및 각 단체별 소규모 모임, 5차별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내는 과정도 물론 거쳤다.

1982년 고베시는 마노지구마치즈쿠리추진회를 그 해 제정된 마치즈쿠리 조례에 근거, 제1호 마치즈쿠리 협의회로 인정함과 동시에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 구상을 법정계획인 '지구계획'으로 결정했다. 또 시는 추진회와 협정을 체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마치즈쿠리 구상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부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면밀하고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었다.

◇토지이용·도로 폭·노후주택 대책까지 포함된 구상=1980년 7월 완성된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구상의

목표연도는 2000년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었다. 지구 내 남측은 공장지대와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분리하고 지구 내 도로 폭은 6m, 지구 동서 양측에는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노후 주택은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방식은 원칙적으로 고베시가 건설하도록 권고했다.

전체 지구를 재개발지역, 주민 직접 재건축지역, 공공주택 건설지역, 공장 이전지역, 고층 건물지역, 시장 정비지역, 상업지 육성지역 등으로 구분한 것은 물론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치즈쿠리 협정을 통해 용도 및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협정 사전 신청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이전 건축물 용도, 구획도로에 접한 부지에서의 건축물 설치 또는 개수, 50㎡ 이상 주차장 설치, 토지 구획 형질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이다. 협정 신청은 공사 착수 30일 전에 해야하며 건축 전 사전협의 대상은 주거지역에서의 공장 재건축, 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이나 공장용도 건축, 전체 규모는 3층 이상 건축 전체 연면적 500㎡ 건축물 전체로 지정했다.

◇새로운 주민 요구·시대 변화 수용=1990년 마노지구 마치즈쿠리 구상은 노후 주택을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목표연도는 2000년으로

로 갈지던 10년 동안 구상을 실천하면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2기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마노지구를 다시 도로·공원 정비와 주택 재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설주택종합정비지구',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건축하는 '장육(일본식 목조가옥)협조개선지구',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재건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별개선지구', '공동주택개발정비지구', '철거공장 수용지구', 커뮤니티센터, 보육소, 노인정 아동관, 초등학교 등 '커뮤니티 시설지구', '거점개발지구', 공원 등으로 재분류했다.

1995년 1월17일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마노지구 내에서는 사망자 19명, 이재민 1400명, 주택 45호 소실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주택 및 환경정비를 더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1년 시작된 '제3기 체제'는 지하철역 개설에 따라 교통 편리성이 향상된 지구 동쪽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집적시키는 방안을 반영했다.

고베시 나가타구 마치즈쿠리추진부 오니시 토루 사무관은 "무엇보다 마노지구의 제1·2·3기 체제는 주택 문제를 단순히 토지소유주나 건설업체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융통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특징"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유례가 없는 다양한 방식의 주택 건설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베시는 개별 및 유도 재건축의 경우 규모에 따라 조사계획비·철거비·공동시설 정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축 계획 시 철거된 뒤 주거지를 구하지 못할 영세민을 위한 대책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PRAISE Festival

- 프레이즈 페스티벌 -

광신대학교 프레이즈 페스티벌

[후원] 광주 CBS CTS 광주방송 | 기독교신문 | 광주일보 | KJB | 광주은행 | fcs 광주국동방송 | [협찬] 광해종합건설 | M | 대학회관

참가문의 062)605-1130

가스펠 찬양대회 3rd.

예선 :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1시
*신청인원에 따라 예선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본고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경연부문

① 솔로
② 그룹(2인 이상 중창 및 찬양팀)
*경연 곡목
▶ 예선 : 지정곡 및 자유곡 1곡
· 지정곡 - 솔로 : 주님다시 오실 때까지(포스) 중창(2인 이상) :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팀 : 영원히 찬양 드리세(응기장미)
▶ 본선 : 자유곡 1곡 [본선 진출자팀]에 한함]

참가지역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시상부문

대상, 각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솔로, 그룹)
◆ 솔로, 그룹(찬양팀) 경연에서 직접 연주를 할 경우 및 창작곡일 경우 가산점 부여함

시상내역

① 대상 : 상금 300만원 / 부상 여수악기타
② 금상 : 그룹 상금 100만원 / 부상 고급 마이크 개인 상금 100만원 / 부상 MP3플레이어
③ 은상 : 그룹 상금 50만원 / 부상 고급 마이크 개인 상금 50만원 / 부상 MP3플레이어
④ 동상 : 그룹 상금 20만원 / 부상 고급 마이크 개인 상금 20만원 / 부상 MP3플레이어
*참가팀 전원 기념품 증정,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입상자 특전

고3 수험생인 경우 본고 진학시 장학금 지급
- 대상 : 2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입학금 제외)
- 금상 : 1년간 등록금 50% 장학금 지급(입학금 제외)
- 은상 : 1학기 등록금 30% 장학금 지급(입학금 제외)
- 동상 : 입학금 면제
*본선 진출자(팀) CD제작 및 그룹(찬양팀) 연주 악보집 제작

참가신청

① 신청기간 : 2011년 11월 7일(월) ~ 12월 2일(금) 까지
② 참가비 : 솔로 40,000원 / 그룹 80,000원
*자세한 내용은 본고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2012학년도 광신대학교(학부) 신입생 모집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 **군종장교(군복) 선발시험 응시 가능(신학과)**
특전 :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기독교영문대학!
질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 학 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신 학 과	25
	국제 한국어 교원 학과	2
사 회	사회 복지 상담 학과	8
사 범	유 아 교 육 과	10
예 능	음 악 학 과	7
	실 용 음 악 학 과	5
총 계		57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가'군)**
· 원서접수 : 2011. 12. 22(목) ~ 27(화)

» 특별전형(정시모집만 해당)
· 신학과 :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전형
· 유아교육과 : 가정주부 전형

» 장학제도
대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 지급

KWANGSHIN UNIVERSITY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kwangshin.ac.kr